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공동성명 전문

(동북아시아 물류협력을 위한 오카야마 선언)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지난 5월17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되어 공동성명(오카야마선언)이 채택되었다.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공동성명 전문과 부속서안 중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와 관련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의 활동지원 명시 등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

1.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물류담당 장관들은 2008년 5월 17일 일본 오카야마에 모여, 삼국이 2006년 제1차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실천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음
2. 우리는 먼저 동북아 물류현황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실천과제에 기반한 다음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교환, 협력, 공동연구 등의 방식으로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가.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임. 2006년 한국, 중국, 일본이 창출한 총 무역액은 약 4,000억 \$로 세계 무역액의 16%에 이르며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하에 삼국간 무역촉진과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비용절약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에서의 막힘없는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음

나.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물류활동이 온실가스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있는 상황임을 감안, 동북아에서 환경친화적 물류 또는 'Green Logistics'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지구온난화 대책의 성공을 위해 삼국간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음

다.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를 위한 다양한 보안 조치들이 요구됨. 그러나 물류 분야에서 보안 조치만을 개선시키는 것은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물류보안의 확보와 물류 효율화 간 조화가 가능한 보안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보안조치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화물의 흐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삼국은 물류보안을 위해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삼국은 상기 목표를 “한중일 물류협력의 3대 목표” 라 명하기로 함

3. 상기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속서에 있는 실천과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삼국은 물류기업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으로 해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필요한 경우 여타의 정부기관과도 협력하기로 하였음

나. 트레일러 사시 상호주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2008년도 연구수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음

다. 우리는 물류장비의 표준화가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이해를 같이함. 12ft 컨테이너 같은 소형 컨테이너의 활용도에 주목하고, 향후 범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또한 삼국간 팔레트 크기의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라. 삼국간 물류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물류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나아가 항공화물운송에 대한 정보 및 통계 공유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마. 삼국의 항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동북아 국장급 회의 보고서를 승인하였음. 삼국은 다음 세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임

- 1) 동북아 국제 해상운송 유닛로드 네트워크 증진
- 2) 물류장벽 제거와 항만간 제휴를 통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체계 개선
- 3) 항만물류와 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바. 환경친화적 물류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삼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물류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2008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사. 우리는 관세기관과 협력하여 삼국간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간 조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임

4. 동 장관회의 본래의 공식명칭에서 "Maritime"을 삭제하고 "China-Japan-Korea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and Logistics"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함. 이는 해상운송을 중시하되, 항공화물 운송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변경된 장관회의 명칭은 차기 장관회의부터 사용함
5. 마지막으로 삼국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파트너십을 확대 및 심화시키기로 약속하였음. 실천과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의 마련은 물론 물류와 관련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하였음
6. 차기 장관회의는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됨

※아래 부속서 첨부 : 부속서안 전문(12개 실천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 중
물류장비 표준화 추진 부분

※부속서안(제2차)전문 중 팔레트 표준화와 APSF지원 합의 내용

삼국은 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화물용 컨테이너의 표준화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국문

삼국간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박 화물을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는 않아도 20ft/40ft 규격에 가장 적합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북아에서는 전자 부품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물을 자주 운송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수요 증가를 맞추기 위해 12ft정도의 작은 규격의 컨테이너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삼국은 12ft 컨테이너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용이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물류장비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각국의 컨테이너 사용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의 전문가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팔레트 규격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팔레트 규격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팔레트 체계 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APSF)이 2006년에 설립되어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은 1100x1100, 1000x1200을 아시아 지역 기본 표준 팔레트 규격으로 합의하였다. 삼국은 동북아에서의 기본 표준 팔레트 규격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전문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영문

To promote seamless logist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it is effective to use containers that are most suitable to ship cargo and types of cargo even if they are not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ones, such as 20ft or 40ft containers. In Northeast Asia, there is a growing need to transport relatively small size cargo such as electronic parts frequently so that use of smaller size containers, such as 12 ft containers, is gradually spreading due to this high potential demand. The three countries understand the usefulness of 12ft containers and will conduct further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argo container use in each country for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equipments.

In addition, experts of the three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for standardization of pallet size in Northeast Asia though various sizes of pallets are being used there. For example the 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APSF) was established in 2006 and member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agreed that 1,100 x 1,100 and 1,000 x 1,200 would be basic standardized pallet sizes for Asian region. The three countries will support experts' efforts popularization of those pallet sizes in Northeast Asia.